

● 내무부에 소방기기 기증

본 협회 李大鎔이사장은 지난 8월 12일 鄭石謨 내무부장관을 예방, 농촌형 소방차 11대, 간이완강기 75대, 공기호흡기 1백 24대, 로프총 11정 등 약 3억원 상당의 소방기기를 기증하고 이를 국가소방장비 현대화와 소방활동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본 협회 文元植이사, 金寬治기 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 제11회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입상자 시상식

불조심에 대한 인식을 널리 일깨우기 위해 본 협회가 11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여성 수필·수기 현상모집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8월 26일 오후 본 협회 6층 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李大鎔 본 협회 이사장을 비롯 수상자와 수상자기족, 심사를 맡은 홍익대 미대 朴善義교수, 소설가 金異然씨와 협회 전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했다.

1백만원의 상금이 걸린 포스터와 수필·수기부문 최우수작에는 대전 한남대 4년에 재학중인 史熙眠씨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李仙美씨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들 입상작품들은 앞으로 각종 불조심 홍보 활동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85회계연도 안전점검 결과분석」배포

본 협회는 지난 7월 85회계연도중 전국 7대도시 특수건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결과 및 화재현장 조사등 기타 관련자료를, 방재관련법규의 기술기준에 의해 분석, 정리한 「85회계연도 안전점검 결과분석」을 발간 배포했다.

● 올림픽공원 시설물 특별점검

본 협회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특별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경기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1부 李起彦과장을 팀장으로 5명의 점검요원이 투입된 이번 점검에서는 서울 강동구 방이동소재 올림픽공원내 시설중 5개 시설과 부대설비, 경기도 광주군 미사리소재 조정경기장내 일부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진단을 실시, 이들 시설물에 내재한 화재 및 폭발등 취약요소를 밝혀내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방재시험소 인정마크 선정

본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소장 李裕龍)는 우수방화제품 인정업무등에 사용할 시험소 인정마크를 협회내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방재시험소는 앞으로 시험소의 규격에 합격한 우수방화제품에 대해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함께 방재시험소의 한글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로, 영문명칭은「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A Subsidiary of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영문약칭은 영문명칭의 머릿글자를 딴 「FILK」로 확정됐다.

● 손보사 화재보험부장 초청간담회

본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는 지난 9월 12일 각 원수사 화재특종업무담당 부서장과 한국보험공사를 비롯한 손보업계 관련 인사를 시험소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 협회가 화보험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위험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 추석 맞아 전방 및 불우이웃 위문

본 협회 李大鎔이사장은 지난 9월 15일 추석을 맞아 육군 6685부대를 방문, 도서(「사이공 억류기」) 등 2백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여념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편 李一男전무이사는 지난 9월 17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과 강서구 화곡동 소재 천사종합복지원을 찾아 어린이와 노인들을 따듯이 위로하고 선물용과자 1백상자, 쇠고기 15kg 등 1백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 소방검정공사 인사

내무부는 지난 7월 28일자로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에 劉奉植 전 감사, 감사에는 金斗信 전 대구시 소방본부장을 각각 선임하였다.

● 주요시설 가상소방훈련

서울시 소방본부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올림픽 관련시설 및 백화점등 화재취약건물에 대한 가상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특히 주요시설의 유사시 화재진압 적응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올림픽시설을 비롯, 주요문화재등 22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훈련을 실시했다.

● 다용도 소방차 개발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난 8월 5일 일반견인차를 개조하여 자체개발한 다용도 소방차를 공개했다. 이 다용도소방차는 서부소방서 丁三成소방관이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견인기능외에 연기배출, 인명구조, 제거대상건물파괴, 화재지역조명등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 할론가스 본격 생산

첨단소화제인 할론 1301 (CF₃Br) 가스가 국내기술진에 의해 국산화돼 10월부터 본격적인 양산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화학(대표 安在成)은 한국과학기술원 李允容박사와 공동으로 할론 1301 가스를 개발, 오는 10월부터 연산 7백 50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 할론 1301 가스는 지금까지 개발된 소화약제로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가스누출 경보기공장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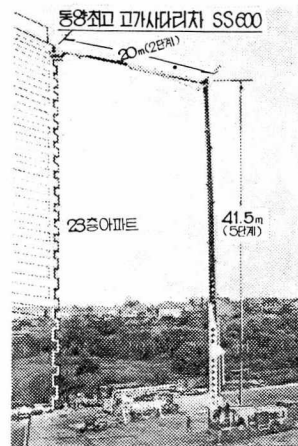
게코전자(대표 洪起龍)는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의 내수 및 수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원주공장을 지난 9월 5일 준공했다. 대지 3천평에 건평 8백평 규모로 10 억원을 들여 건설한 원주공장은 가정용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를 주로 생산하게 되며 이 공장은 연6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 특별 소방점검

서울시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 남대문, 덕수궁등 30여개소의 문화재시설과 고층건물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시설의 관리유지상태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61m 초 고가사다리차 도입

서울시 소방본부(본부장 任炳玉)는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 23층 높이까지 인명구조와 진화작업을 할수 있는 최대 작동높이가 61.5m인 대형굴절사다리차를 영국 사이먼 엔지니어링회사로부터 8억 6백여만 원을 들여 도입하고 지난 7월 24일 중구소재 극동빌딩에서 시범훈련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SS600으로 불리는 이 소방차는 차량길이가 12m이며 무게는 40톤이다. 사다리는 모두 7단계로 화재장소 높이에 따라 조절되는데 5단계(41.5m)까지는 수직작동이고 나머지 2단계(20m)는 3백 60도 수평작동된다. 작업대 무게는 4백 50kg으로 체중 70kg인 사람 6명을 동시탑승시킬 수 있다. 이 SS600은 화재장소에 도착, 재키로 차를 고정시키고 최대높이까지 사다리를 올리는데 11분이 소요되며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데는 2분이 소요된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날로 늘어나는 고층건물에 대비 효과적인 소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차를 도입한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소방장비 현대화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보험국장 새로 부임

재무부는 지난 8월 14일자로 증권보험국장에 朴 鍾奭 경제협력국장을, 이채국장에 白 源九 증권보험국장을 각각 전보발령하였다. 새로 부임한朴 국장은 경남 함양산으로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영국 Leeds 대학교 대학원에서 개발행정과정을 수료했으며 재무부에 몸담은 이래 손해보험과장, 국제기구조장, 주미 재무관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 보험발전 연구위 발족

한국보험공사(사장 宋 炳循)는 지난 8월 23일 보험시장의 대외개방등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연구 및 정책개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업계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보험산업발전 연구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 보험홍보 활성화방안 협의

한국보험공사는 지난 7월 29일 보험업계 홍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보험시장 개방과 금융기관의 보험성 상품개발에 따른 유사보험의 시장점유율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비롯 일반 국민의 보험인식 부족, 홍보활동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의 부진등 업계의 홍보분야 당면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본 협회에서는 金 亨基이사가 참석했다.

● 태풍피해 보상금 신속처리

손해보험업계는 지난번 태풍 베라 호에 의한 업계 전체의 피해보상금이 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신속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국보험공사가 지난 9월 5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비롯 안국화재등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물건중 이번 태풍으로 모두 1백 53건에 약 93억원의 피해(추정)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태풍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확실한 경우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가도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보상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 대한화재 토요일 휴무제 실시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사장 金 聖斗)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8월부터 전 임직원에게 대해 4교대,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손보험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趙 洪)는 지난 8월 1일 대한재보험강당에서 13개회원사 사장을 비롯 역대회장단, 유관기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손해보험업계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회원사 장기근속유공자 13명을 비롯 우수모집종사자 12명, 협회 장기근속자 5명등 총 38명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였다.

● 국민복지 종합보험 개발

고려화재해상보험(주) (사장 金 韶寧)는 공영보험을 보완한 복지형 신종상품인 국민복지종합보험을 국내 처음으로 단독 개발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각종 가계위험, 즉 주택화재, 폭발등의 재산손해와 상해, 사망등 인적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6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계의 위험을 포괄 담보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보험산업 발전방안 마련

재무부는 지난 8월 5일 보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조치로 국내회사의 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상보험요율과 재보험 거래등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고 보험회사의 경영내실화, 모집제도개선등 다각적인 육성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바로쓰면 고마운불

방심하면 무서운불